

중국發 원인 불명 폐렴 현황 및 대응방안

이승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실장 (sslee@kiep.go.kr, Tel: 044-414-1235)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Tel: 044-414-1048)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Tel: 044-414-1285)



차 례

1. 현황
2. 2003년 사스 피해 상황
3. 대응방안

주요 내용

- ▶ 2020년 1월 9일 중국정부가 원인 불명 폐렴의 병원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표한 데 이어 폐렴환자가 사망하고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2003년의 사스(SARS)와 같이 확산될 가능성 대두
 - 세계보건기구(WHO)도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번 폐렴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번 폐렴이 발생한 수산물시장에서 조류나 토끼 같은 다른 동물들의 육류도 판매되었기 때문에 과거 사스와 같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 ▶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병원체로, SARS나 MERS처럼 중증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사스 발생 당시의 경제적 피해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으로 가중된 측면이 있으나, 치사율이 약 10%에 달하고 아직 백신치료제가 없는 호흡기 감염으로 대규모 확산이 가능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
- ▶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대부분의 환자가 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발생했으나, 교통수단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어 싱가포르(환자 206명, 사망 32명)와 캐나다(환자 250명, 사망 38명)의 치사율은 15.2~15.5%에 달한 바 있음.
 - 당시 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전체 환자의 91.9%인 7,754명이 발병하여 730명이 사망
- ▶ 한편 2003년 사스 확산의 경제적 피해로 홍콩은 사회적 비용 17억 달러 싱가포르의 2003년 GDP 성장률 1~1.5%p 감소로 추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사스의 영향이 2003년 2/4분기 GDP 성장률을 1%p(연간 성장률 0.25%p) 내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됨.
-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대이동을 앞두고 폐렴 확산 가능성 대두되면서 주변국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중국 우한 방문자들이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홍콩 정부는 감염병 대응 수위를 '심각' 대응 단계로 격상함.
- ▶ 이에 우리는 △중국 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정부간 협력 채널 점검 △과거 사스 발생 시의 정부대응과 국내 검역 강화 방안 등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과거 사스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민간연구진들과 합동하여 효과적으로 사스 사태를 이겨낸 경험이 있음.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중국정부와의 정보교환 채널을 마련하여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음.

1. 현황

가. 중국 내 감염 현황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의 한 수산물시장 내 상인과 시민들 사이에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증상이 발생함.

- 우한시 위생당국의 2020년 1월 11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폐렴의 최초 발병 시기는 2019년 12월 8일로 추정됨.¹⁾
- 환자의 대부분은 발열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수의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폐 모두에서 폐침윤(Pulmonary Infiltrates) 증상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집단 폐렴증상이 발생한 수산물시장은 2020년 1월 1일부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1월 9일 병원체(病原) 조사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는 이번 원인 불명 폐렴의 병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명되었다고 밝힘.²⁾

-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와 장에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6종임.
 - 4종은 일반 감기 수준의 가벼운 인후염 증상을 유발하나, 다른 2종은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우한시 위생당국에 따르면, 1월 9일 저녁 61세 남성이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함.³⁾

- 이 남성은 집단 폐렴이 발생한 수산물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
- 따라서 이번 바이러스가 심각한 호흡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정확한 판명을 위해서는 병원학 연구, 역학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글상자 1.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판단 기준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WHO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기침 호흡곤란 등 1개 이상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이나 호흡곤란증후군(RDS)으로 볼 수 있는 폐침윤 현상이 있으나 △해당 질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병명이 없으며, 사스 전염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는 환자는 바로 사스로 진단하도록 한 바 있음.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04. 1. 13), "SARS Basics Fact Sheet."

1) 2020년 1월 5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12일을 최초 발병날짜로 발표했으나, 1월 11일에는 12월 8일로 정정하여 발표함.

2) 『人民网』(2020. 1. 10), 「武漢不明原因的病毒性肺炎病原體系新型冠狀病毒」.

3)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http://wjw.wuhan.gov.cn/front/web/showDetail/2020011109036>.

■ 우한시 위생당국(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은 부정기적으로 입원, 위독, 폐렴확정 환자 수, 환자와 접촉한 인원 수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다가, 1월 1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20년 1월 12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환자는 총 41명으로 확정되었으며, 환자들과 접촉한 인원은 총 763명이고, 그중 46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나머지 717명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

■ 우한시 위생당국은 1월 12일 이번 폐렴의 마지막 발병 시기를 1월 2일이라고 밝힌 데 이어, 사람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료진 중 감염된 경우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음.

표 1. 2019~20년 우한시 급성 폐렴 관련 현황

시기		주요 내용
2019년 12월	8일	최초 발병시기로 추정됨.
	31일	- 27명의 환자 중 위독한 환자는 7명 - 퇴원환자는 2명
2020년 1월	3일	- 입원한 44명의 환자 중 위독한 환자는 11명 - 환자 접촉자는 121명
	5일	- 입원한 59명의 환자 중 위독한 환자는 7명 - 환자 접촉자는 163명 - 최근 발병시기가 12월 29일로 발표됨.
	9일	-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여태까지 발견된 적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명됨. - 61세 남성이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
	12일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환자가 총 41명으로 확정됨. - 현재 환자들과 접촉한 인원은 763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중 46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

자료: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http://wjw.wuhan.gov.cn/front/web/list2nd/no/710>).

표 2. 우한시 집단 폐렴 환자 발생 상세 현황

발표일	누적 환자수	퇴원	위독	사망	기타
'19. 12. 31 (집단 폐렴)	27	2 (예정)	7	0	18
'20. 1. 3 (원인불명 바이러스성 폐렴)	44	-	11	0	33
'20. 1. 5 (원인불명 바이러스성 폐렴)	59	-	7	0	52
'20. 1. 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1	2	7	1	31
'20. 1. 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1	6	7	1	27
'20. 1. 1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1	7	6	1	27

주: 1) 1월 5일까지 중국정부는 이번 폐렴증상을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 지칭하였으며, 1월 9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발표함.

2) '기타'는 병세가 심하지 않은 상태의 환자로, 현재 우한시 지정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임.

3) 2020년 1월 11일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현황(전체 환자 수, 퇴원, 위독, 사망 환자수)은 누적 환자 수임.

자료: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http://wjw.wuhan.gov.cn/front/web/list2nd/no/710>).

■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번 폐렴증상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임.⁴⁾

- WHO는 이번 폐렴이 발생한 수산물시장에서 조류나 토끼 같은 다른 동물들의 육류도 판매되었기 때문에, 폐렴이 사스와 같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함.⁵⁾

■ 마지막 발병시기가 1월 2일로 발표되었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간의 전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접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단 역학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추가 환자 보고가 있을 수 있고, 사람간 전파가 보고될 가능성도 있음.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대이동을 앞두고 폐렴증상이 확산될 경우 중국 내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나. 주변 지역 및 관련국 상황

■ 홍콩 정부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감염병 대응 수위를 '심각'⁶⁾ 대응 단계로 격상함.

- 최근 우한 방문자 중 48명이 발열·폐렴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이 중 25명이 완치되어 퇴원했고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이는 없는 상태이나, 홍콩 정부는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⁷⁾
- 우한 방문 후 폐렴증상을 보인 45세 여성이 격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자, 홍콩 정부는 감염 의심자가 격리 거부 시 벌금·6개월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 수정⁸⁾
- 홍콩 식품위생국 국장은 여행 도중 야생동물 섭취나 수산물시장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함.
- 홍콩 정부는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얻고자 1월 13~14일 담당부처 공무원·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우한 시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싱가포르에서는 우한에 다녀온 후 폐렴증상을 보였던 세 살 어린이와 26세 남성 모두 이번 폐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⁹⁾

- 싱가포르는 1월 3일부터 우한 여행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진행하고 있음.¹⁰⁾

4) WHO(2020. 1. 5), "Disease outbreak news: Pneumonia of unknown cause - China."

5) South China Morning Post(2020. 1. 5), "China says Wuhan pneumonia not Sars, but virus remains unidentified, more people hospitalised."

6) 대응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함. 2003년 중국 사스 발병 당시 최초 발원지인 광둥성과 가까운 홍콩에서 총 1,755명의 사스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치사율은 16.9%에 달했음. 치사율은 Lee and McKibbin(2012)을 토대로 계산. South China Morning Post(2020. 1. 5), "Hong Kong activates 'serious response level' for infectious diseases as Wuhan pneumonia outbreak escalates."

7) South China Morning Post(2020. 1. 9), "Wuhan pneumonia: Hong Kong requests for genetic information from mainland China on mystery virus."

8) EJinsight(2020. 1. 8), "HK govt amends laws to better fight Wuhan-linked pneumonia cases."

9) Channel News Asia(2020. 1. 9), "Tests show Chinese girl warded with pneumonia, Wuhan travel history not linked to outbreak in China: MOH"; Straitstimes(2020. 1. 11), "Second suspected case of Wuhan virus in Singapore tests negative."

- 대만 위생당국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 우한발 직항편에 탑승한 이들 전원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감염 의심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¹¹⁾
 - 직항편 탑승자 중 유사 증상을 보인 이들은 A형 독감 등 다른 질병이었음.
 - 이와 별개로 우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이들 중 폐렴증상을 보인 4명 중 3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1명이 검사 진행 중이며, 1월 13일까지 대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없음.¹²⁾
 - 대만은 중국과 2010년에 체결한 의료협약에 의해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1월 12일 우한시로 의학 전문가 2인을 파견함.¹³⁾
- 태국에서는 우한에 다녀온 61세 중국인 여성이 1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정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준비하고 있음.¹⁴⁾
 - 태국정부는 1월 3일부터 각 공항에서 우한발 항공편 탑승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여성은 1월 8일 방콕 스완나품 공항에서 폐렴증상이 발견되어 격리조치됨.
 - WHO에 따르면, 이는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임.
-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본토까지 전염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신중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힘.¹⁵⁾

2. 2003년 사스 피해 상황

- 중국에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7월 14일까지 총 5,327명이 사스에 감염되었으며, 회복자는 4,941명, 사망자는 348명으로 기록됨(표 3 참고).
- 홍콩·마카오·대만까지 포함할 경우 7,754명이 발병하였으며, 사망자는 총 730명으로 치사율 9.41%를 기록
- 한편 최초 발원지인 광둥성과 가까운 홍콩의 경우 총 1,755명의 사스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치사율은 16.9%에 달했음.

10) Bloomberg(2020. 1. 5), "Singapore Reports First Suspected Pneumonia Case Linked to Wuhan."

11) 台灣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1. 10), 「因應中國大陸武漢肺炎疫情, 我國持續保持高度警戒, 籲請民眾自武漢地區返國14日內出現發燒及呼吸道症狀者, 應戴口罩速就醫」.

12) 台灣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1. 13), 「針對中國大陸武漢肺炎疫情, 疾管署持續現有因應作為, 籲請民眾前往該地區及返國做好相關防護措施」.

13) 대만은 WHO 비회원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방중 조사로 감염상태 파악이 가능해짐. SCMP(2020. 1. 12), <https://www.scmp.com/news/china/society/article/3045756/mainland-chinese-authorities-allow-two-taiwan-specialists-visit>; Focus Taiwan(2020. 1. 13), <https://focustaiwan.tw/society/202001130015>.

14) Bangkok Post(2020. 1. 13), "Coronavirus-infected Chinese tourist being treated in Thailand"; WHO(2020. 1. 13), "WHO statement on novel coronavirus in Thailand"; Time(2020. 1. 13), "Thailand Confirms Traveler from China Hospitalized With New Form of Coronavirus, According to U.N. Officials."

1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0. 1. 11), "Novel Coronavirus 2019, Wuhan, China Situation Summary."

표 3. 사스로 인한 인적 피해

(단위: 명, %)

국가	누적 환자수	사망자 수	회복자 수	치사율
중국	5,327	348	4,941	6.53
홍콩	1,755	298	1,433	16.9
마카오	1	-	1	0
대만	671	84	507	12.5
중국·홍콩·마카오·대만	7,754	730	6,882	9.41
말레이시아	5	2	3	40
몽골	9	-	9	0
필리핀	14	2	12	14.3
한국	3	0	3	0
싱가포르	206	32	172	15.5
태국	9	2	7	22.2
미국	75	-	67	-
베트남	63	5	58	7
캐나다	250	38	194	15.2
기타 국가	49	2	45	91.8
총합	8,437	813	7,452	9.6

자료: Lee and McKibbin(2012), "The impact of SARS" Ross and Song ed, China: New Engine of World Growth, p. 2 Table 2.1 토대로 내용 재구성(국가별 치사율은 사망수/누적 환자수로 저자 계산).

■ 2003년 당시 사스는 교통수단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됨.

- 주변국인 싱가포르, 필리핀뿐만 아니라 비교적 거리가 먼 국가인 캐나다에도 250명의 환자가 발생했음.
- 당시 한국은 사스 의심환자가 3명 발생하여 WHO에 보고하였으나, 확진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확진환자는 없었음.

■ 홍콩의 경우 사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17억 달러로 추정했으며, 싱가포르는 사스로 인해 2003년 GDP 성장률이 1~1.5%p 감소했다고 추정한 바 있음.¹⁶⁾

■ 2003년 한국의 2/4분기, 특히 5월의 수출증가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것을 모두 사스의 파급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스의 영향이 2/4분기 GDP 성장률을 1%p(연간성장률 0.25%p) 내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되었음.¹⁷⁾

- 한편 2002~03년 전 세계적으로 사스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였을 당시 한국에서는 발병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 김치효과가 있었다는 정보가 확산되며 한국의 대중국 김치 수출이 급증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대중국 김치 무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전통적인 적자품목이었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 한국의 대중국 김치 수출이 급증함.

16) Caballero-Anthony(2005), "Crisis, Vulnerabilities, and Regional Responses," *Asian Survey*, Vol. 45, No. 3, pp. 475-495.

17) 사스의 효과만을 계량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사용함. KDI, 『2003년 연차보고서』, p. 86.

표 4. 2003년 한국의 월별 무역

(단위: 백만 달러, %)

월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월	14,320	25.8	14,495	28.0	-175
2월	13,337	21.0	13,858	32.3	-521
3월	15,379	16.1	15,870	32.4	-491
4월	15,721	19.2	14,759	17.5	962
5월	14,676	3.5	13,524	6.5	1,152
6월	15,656	21.4	13,428	12.5	2,228
7월	15,432	15.2	14,898	14.3	534
8월	15,375	10.1	13,541	5.3	1,834
9월	17,021	22.4	14,531	11.9	2,490
10월	18,930	25.5	16,537	19.7	2,393
11월	18,242	20.0	15,761	12.6	2,481
12월	19,729	31.3	17,624	22.0	2,105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을 활용하여 저자 정리.

표 5. 사스 전후 한국의 대중국 김치무역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1	30.2	-87.5	195.4	10.4	-165.2
2002	41.9	38.6	467.7	139.3	-425.7
2003	187.8	348.1	10,288	2,099	-10,099
2004	63.1	-66.4	29,472	186.5	-29,409
2005	50.2	-20.5	51,312	74.1	-51,262
2006	26.8	-46.5	87,936	71.4	-87,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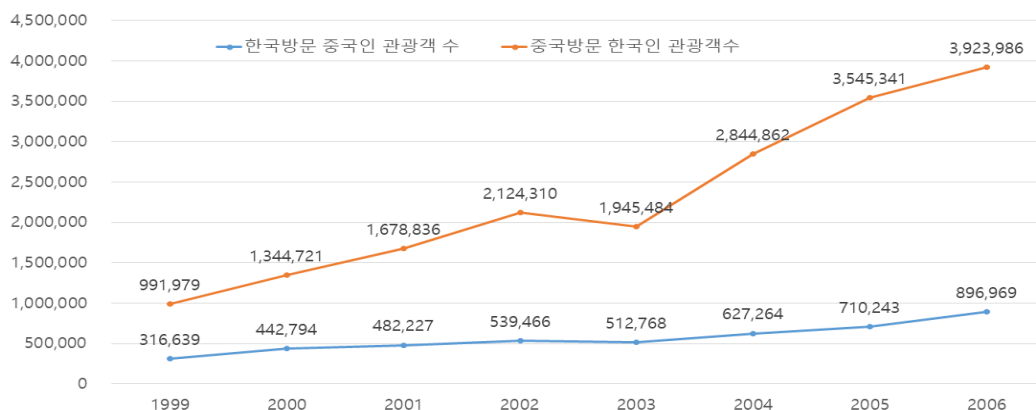
주: 김치 수출입 통계는(HS 2005901000, 냉동 제외) 기준임.
자료: K-stat을 활용하여 저자 정리.

■ 1999년부터 계속 증가하던 양국간의 관광객 수는 사스로 인하여 2003년에 모두 감소한 바 있음.¹⁸⁾

-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2002년 약 212만 명을 기록했으나, 2003년 사스로 인하여 약 18만 명이 감소하여 약 194만 명을 기록함.
-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2002년 53만 9,400여 명에서 2003년에 51만 2,700여 명으로 감소

그림 1. 한·중 상호 관광객 수 연간 추이(1999~2006년)

(단위: 명)



자료: 한국관광공사, 中国旅游年鉴의 한중간 상호 방문객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8)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한국관광공사, 방중 한국인 관광객 수는 中国旅游年鉴의 통계임.

3. 대응방안

■ 과거 사스 발생 당시의 피해 상황 및 대응경험을 참고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중국 내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은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스에 대한 △의학적 정보 부족 △사스 피해에 대한 과도한 매체보도로 인하여 심리적, 사회적 악영향을 주었음.
- 그러나 사스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치사율이 9.6%에 달하는 전염병이며,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호흡기 감염으로 대규모 확산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폐렴 사태도 △ 현재까지 의학적 정보 부족 △ 한국 국내 언론의 집중된 관심 △ 과거 사스로 인해 느꼈던 대중적 공포감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

■ 이에 우리는 중국 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간 협력 채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스는 2002년 11월 16일 광둥성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WHO는 2003년 4월 16일이 되어서야 사스가 기존에 사람에게서 볼 수 없었던 병원균임을 발견했음.¹⁹⁾
- 그러나 이번 원인 불명 폐렴 발생에 대해 중국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하고, 폐렴의 원인을 조속히 알려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WHO에 집단 폐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국제전문가와 팀을 구성하여 2020년 1월 9일에 이번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임을 발표함.²⁰⁾
- 중국정부가 2003년 사스 발생 때보다 열린 태도로 이번 폐렴에 대하여 주변국과 소통하고 대응한다면, 기존의 사스 사태보다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²¹⁾

■ 우리는 2003년 사스 발생 시 정부 대응 및 국내 검역 강화 방안 등의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03년 한국정부는 중국과 홍콩의 사스 전염사태 진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총리실 산하 ‘사스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일사분란하게 대응함.

19) Lee and McKibbin(2012), “The impact of SARS” Ross and Song ed, *China: New Engine of World Growth*, ANU Press, JSTOR, p. 24, Table 2.3.

20) Forbes(2020. 1. 11), “Wuhan Coronavirus Outbreak Shows The Importance Of Sound Science, Sleuthing, And Cooperation.”

21) WHO의 중국 대표 Gauden Galea는 중국정부의 전염병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The Scientist(2020. 1. 9), “New Coronavirus Identified in Central China Pneumonia Outbreak.”

- 한국정부는 당시 사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550만 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한 바 있음.²²⁾
- 당시 한국의 보건당국은 SARS 전염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들에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단시간 내 감염여부 판단이 가능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²³⁾

KIEP

22) 『人民网』(2003. 5. 6), “S.Korea to Spend US\$5.5 million on Preventing SARS Spread.”

23) 한 전문가는 중국 보건당국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을 정확하게 진단하였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유전자 배열을 세계 각국에 보냈을 경우 진단을 위한 PCR 검사 방법이 가능하다고 밝힘. The Scientist(2020. 1. 9), “New Coronavirus Identified in Central China Pneumonia Outbreak.”